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소식지

교육목적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 지도자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통해 길러주고자 하는 성취능력을 교육목표로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에게 필수적인 의학 지식과 술기,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바탕을 둔 기본적인 진료 능력을 확립한다.

둘째, 건전한 윤리관, 사회적 책무성, 여성 리더십과 능동적인 자기개발능력을 함께 갖춘 의학 전문직업성을 확립한다.

셋째, 비판적 탐구 자세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넷째, 이웃과 국가, 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함양한다.



02대학소식

- 2016학년도 전기
의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개최

03동문인터뷰

- 끝없는 열정과
에너지의 리더
(조종남 전배님 인터뷰)

04기획기사

- 130주년 보구여관
- 이화해외의료봉사단

05학생소식

- 2017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100% 기록
- 동경여의대학교환학생
환영식사
-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멘토 멘티의 날

06교수소식

- 정년퇴임사
- 교수소식

07동창소식

- 50호 동창회 소식

08행사알림

- 보구여관 130주년 기념
- 모교방문의 날
- 체육대회

대학소식

의학전문대학원, 2016학년도 전기 의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개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장: 김경호)은 2월 10일(금) 오전 11시 의학관 김옥길홀에서 '2016학년도 전기 의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을 갖고, 의무석사 71명, 의무석사/의학박사 2명 등 총 7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위수여식에는 김승철 의무부총장, 김경호 의학전문대학원장,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양명수 교목실장, 오혜숙 의과대학 동창회장, 의학전문대학원 주요 보직자 및 교수진 등 주요 내·외빈과 졸업생 및 가족이 참석하여 의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을 축하했다. 김승철 의무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변화하는 시대의 중심에 서서 스스로 변화하고, 사회의 변화와 융합을 주도해나가길 바란다"며 "올해로 보구어관 창립 130년의 이화의료원 역사를 통해 '사랑의 기독교 정신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구한다'는

정신과 덕목을 새기고, 삶의 터전에서 환자와 아픔을 같이하고, 약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의사가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격려했다. 김경호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우리나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유일하게 4학년 학생들이 모두 함께 졸업하면서 의사 국가고시도 100% 합격하는 영광을 안긴 학생들과 지도교수님들께 박수를 청한다"며 "의사로서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무한정한 길 중 우리나라와 전세계를 무대로 환자를 돌보고, 학문을 연구하고, 의료 환경과 제도를 변화시키고, 의학을 교육하며, 봉사하는 길 등 각자의 그릇과 꿈에 따라 가장 자신에게 맞는 좋은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수석졸업의 영예는 윤이나 학생이 차지했으며 ▲대한의사협회장상 = 신소영 ▲대한의학회장상 = 권보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상 = 조효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표창 = 김지연 ▲한국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회장상 = 송신혜 ▲동창회장상 = 김나정 학생이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동문인터뷰

끝없는 열정과 에너지의 리더

이화여대 의과대학 조종남 선배님(24회 졸업) 인터뷰



학생기자 고혜진(의전원 2학년)과 박조은(의전원 2학년)은 금천구에 위치한 조윤희 산부인과를 방문하였다. 조종남 선배님(24회 졸업)은 전 총동창회장, 현 YWCA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훌륭한 리더로서 본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다. 이곳에서 선배님의 삶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었다.

Q 현재 회장으로 역임하고 계시는 YWCA는 어떤 곳인가요?

A YWCA는 Young Women Christian Association의 약자로 Y 젊은이를 세우고, W 여성을 교육하고 세우며, C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기관입니다. 1922년 김활란 박사를 비롯한 두 분의 선각자님이 세우신 YWCA는 올해 95주년을 맞이하였고 100주년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애국계몽운동, 직업훈련,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활동들을 꼽자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폭력 피해 여성쉼터 ▲비행청소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복지 활동 ▲소비자 환경 문제, 각종 상품들에 대한 연구와 감시 활동 ▲산모도우미 교육, 환자 도우미 교육 등 의료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청소년, 여성의 지위 향상,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위한 회원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여성 의사들뿐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겪는 여성 경력 단절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A 대개 결혼이나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보아왔는데 다른 업종도 고려하겠지만 한 번 손을 놓으면 다시 복귀한다는 것

이 매우 어렵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전문직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지만 하면 고귀한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Q 의료 외의 활동들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친정어머니는 교회에서 구제 부장을 10년 이상 지내셨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배려하는 정신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고 서로 돕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산모도우미 교육에 필요한 강의를 산부인과 의사로서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민단체에 속한 많은 분들의 봉사와 헌신, 주위의 따뜻한 배려를 하는 모습이 점점 부러워지고 뜻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도에 YWCA 이사가 되었을 때 의약분업으로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 당시 의료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 때문에 의료인들의 집회와 어려움을 다른 분들이 잘 알아주시지 못하는 거 같아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의료홍보대사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YWCA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종의 치유 역할을 하는 것이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여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이화여자대학교가 여성 리더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리더인 선배님의 입장에서 앞으로 후배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A 우리 모두는 리더입니다. 의료계통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여건이 주어졌을 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능력,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져나간다면 모두가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여자의사회의 회원으로 세계여자의사대회에 매년 나가서 포스터 발표도 하고, 연자로 나간 것도 4~5회 됩니다. 개원의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제가 발표하는 걸 보고 도전을 받아 이듬해에 발표를 준비하는 후배를 볼 때 이런 것이 존경받는 리더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Q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A 최선을 다한 의료 행위임에도 원치 않는 불행한 결과가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 선배들의 경험 속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배들과 소통하며 솔직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감당하실 수 있는 정도의 시련을 주신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선배들의 도움이 힘든 순간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사회적 학대 예방에도 힘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A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에서 학대대책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노인들의 학대에 대해서 사회가 무관심한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대 예방에 대한 대책과 사회적인 반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인학대 예방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박인숙 국회의원과 상의하여 발의가 되었고 현재 국회 내의 보건 복지 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심포지엄, 국회에서의 주제 강연, UCC 공모전 등을 통해 사회 인식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 여성 등의 피해 폭력에 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YWCA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 폭력 여성의 일시적인 거처인 쉼터의 입소 여성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천구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의 산부인과적인 문제를 무료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Q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친 것처럼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의대 생활이 힘들더라도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을 건강하게 하고, 늘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의사가 되기까지 희생적으로 돌보신 어머니님과 가족들, 열성으로 가진 지식을 쏟아부어주신 의과대학교수님들, 행여 실수할까 일일이 환자 볼 때마다 의논하고 때로는 꾸짖으시던 선배 레지던트 모두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넉넉지 못한 제게 장학금을 통해 맘 편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학교와 함께 고생한 동창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조금이나마 장학금과 학교 발전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님들,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과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필요한 모든 것이 올 수 있다고 믿고 늘 기쁨 속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종남 선배님께서 끝없는 열정과 에너지를 지니신 의사이셨다.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힘을 전해주셨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도 이 기운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전원 2학년 고혜진, 박조은 기자〉



동문인터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E-mail: mediewha@ewha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전문병원이자 근대적 여성의학교육기관의 효시인 ‘보구여관’의 간략한 역사 (1887-1912)



△ 1887년 이화학당 정동터 옆, 독립된 건물로 세워진 보구여관

이화학당의 설립자 스 크 랜 트 부 인 (Mary Scranton) 은 조선에서의 선교 사업으로 처음부터 여성을 위한 교육과 의료 사업 모두를 구상하고 있었다. 조선 여성을 위한 의료 기관의 설립은 스 크 랜 트 부인의 숙원 사

업이었고 이를 수감한 미국 북감리교 여선교회에서는 여의사 메타 하워드 (Meta Howard)를 파송하였다. 1887년 10월 29일 조선에 도착한 하워드 의사는 3일 후인 10월 31일부터 스크랜튼 부인의 아들이 운영했던 施病院에서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여자 환자의 진료소는 시 병원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병원이 되는데 『統署日記』에 의하면 1888년 12월 6일(음력 1888, 11, 04)에 조선 정부가 스크랜튼이 청한 여의원의 편호로 ‘善女普救院’ 다섯 자를 내렸다고 한다. 1890년 1월자 북감리교 여선교회의 기관지 《Heathen Women's Friend》에 메타 하워드가 기고한 글인 “The W.F.M.S. Hospital in Seoul, Korea”를 보면 이 병원의 이름은 ‘Po Goo Nyo Goan’이며 한자의 뜻은 “House of Many Sick Women”이라고 한 데서 “보구여관”으로 명칭이 확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메타 하워드의 글에 나타난 보구여관의 구조를 보면 전통 한옥을 개조한 형태로 마루 끝의 커다란 방이 대기실, 가운데 방이 진찰실, 진찰실 너머에 약제실이고 그에 덧붙여 병실이 여러 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메타 하워드는 1889년 말 신병 치료차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녀가 없는 가운데에도 보구여관의 운영은 남자 의사인 닥터 스크랜튼과 닥터 맥길(Dr. McGill)에 의해 이루어졌다.

메타 하워드의 후임으로 여의사 로제타 셔우드(Rosetta Sherwood)가 1890년 10월 14일 내한하여 보구여관에서 진료를 시작하였다. 로제타 셔우드는 이후 조선에서 선교사인 윌리엄 제임스 홀과 결혼하여 로제타 홀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여성의료는 물론 의학교육과 맹인 복지에도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로제타 홀에 의해 미국에서 의학교육을 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인 이화학당 졸업생 박에스더(김점동) 역시 보구여관에서 진료를 하였다.

보구여관은 또한 우리나라 간호 교육과 간호사 양성 사업의 효시가 되기도 한다. 뉴욕에서 로제타 셔우드와 함께 일했던 간호사 엘라 루이스(Ella Lewis)는 1892년 1월부터 1899년 9월까지 보구여관에서 간호사로 일했고 1899년 9월 본래의 선교 업무로 복귀하였다. 루이스가 사직을 한 후 1903년 3월부터 간호선교사 에드먼즈(Margaret Edmunds)가 보구여관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그녀는 보구여관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원 양성소〉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교육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전문 간호사를 배출하였다. 보구여관에서는 또한 많은 한국인들이 진료와 기타 필요한 일들을 도왔다.

예컨대 메타 하워드 의사는 초기부터 사라(일명 봉선 오마니)의 도움을 받았고 그녀는 이후 로제타 셔우드를 도와 간호일과 더불어 환자들에게 선교하는 일도 맡아 보았다. 박에스더(김점동)을 위시한 이화학당의 학생들은 통역과 진료 보조 업무를 맡아 보기도 하였다. 이화학당의 학생들인 김점동 등이 의사의 통역을 하기도 하였다. 로제타 홀 의사는 1892년 동대문에 보구여관의 분원인 “볼드윈 진료소”를 설치하여 진료를 하였는데 1912년 이 자리에 “윌리엄 해리스 기념병원”이 새로 신축되면서 보구여관은 이 병원으로 이전, 통합하여 그 초기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된다. 윌리엄 해리스 기념병원은 훗날 이화여대 동대문병원으로 이어진다.



△ 2018년 완공예정인 마곡지구 새병원 및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 복원될 보구여관의 모습

보구여관 13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2017. 5. 26(금) 10:00 ~ 18:00

▶ 8 page 행사알림 참조

1887년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의료’라는 뜻 깊은 첫 걸음을 떼었던 보구여관 설립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5월 26일(금) 이화여자대학교 ECC 이삼봉홀에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보구여관의 역사(정동에서 마곡까지)에 대한 기초연설을 시작으로 1부 ‘사회속의 이화의학’, 2부 ‘미래를 준비하는 이화의학’, 3부 ‘이화의학 세계를 품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동문 김혜경 교수(미국 컬럼비아대학, 소아재활, 33회 졸업) 및 김현미 교수(미국 에모리대학, 소아신경과, 38회 졸업)를 포함한 다양한 연자들이 강연을 통해 송고한 생명의 빛을 전파하고 있는 이화의학의 역사를 알리고 인류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되새길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될 예정입니다.

이화해외의료봉사단(EMC, Ewha Medical Care) 소개

개요

이화해외의료봉사단은 1989년 네팔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으로 봉사활동 무대를 넓혔고, 2007년 이후에는 매년 방학기간 2차례씩 의료봉사 활동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와 동창회의 지원을 받아 활동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

역사

1989년 이화여대 졸업생인 네팔인 사꾸라 라즈반다리의 요청으로 처음 네팔진료를 시작했다. 당시 의과대학장인 해부학교실의 김순희 교수님을 단장으로 정형외과 최기홍 교수님, 정신과 이근후 교수님, 전공의 2명, 의과대학생 6명이 25일에 걸친 최초의 정장 이래, 1990년부터 1994년까지 5년간은 한국의 장미회가 세운 한-네팔 친선병원인 돌카병원을 집중적으로 방문하였다. 1992년에는 본교 졸업생인 홍사옥 동문이 돌카병원으로 단진료를 위해 가던 중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

었으며, 이를 추모하는 공원이 인근지역에 조성되었다. 최근에도 한국에서는 이 지역으로 의료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1995년부터 7년간은 네팔에서도 의료 환경이 보다 낙후된 오지인 덩쿠타, 바그룽, 포카라, 치트완, 까까니, 주파니 등 10여 곳에서 지역 의료봉사를 펼쳤다. 현지봉사와 더불어 몇몇 심장병 어린이를 초청 하였으며, 네팔에 “이화”라는 이름을 강하게 각인시켰다.

2001년 봉사단을 주로 이끌어오시던 이근후 교수님께서 정년퇴임을 맞게 되면서, 2000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는 봉사단의 활동을 공식적인 학교 차원의 해외봉사활동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의과대학에 활동을 주관하는 Ewha Medical Care가 만들어졌고, 본교 학생처에서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봉사센터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봉사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매년 봉사단 선발 시 많은 학생이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의료원에서도 교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학생수기 - EMC를 다녀와서

2017년의 첫번째 기억, EMC 베트남 의전원 2학년 손민지

우연한 기회로 EMC 베트남 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계획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시기가 맞을거라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갑작스레 지원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나니까 다녀오고 싶다는 마음이 하루하루 커졌습니다. 다행히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의료봉사팀에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기뻐기 때문에 더욱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3번의 준비모임과 워크숍, 발대식, 3일간의 짐싸기. 5박6일간의 현지 일정. 2학기 후반부터 방학까지 가족보다도 EMC 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5박6일간의 다소 짧은 일정이지만 제가 맺은 그 어떤 인연들보다도 베트남팀과의 인연이 끈끈하게 느껴지는 건 아마도 여러 번의 국내일정들을 함께하고 그만큼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이 아닌까 생각합니다. 특히 워크숍을 통해서 짧은 준비모임으로는 다소 서먹했던 친구들과도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EMC라는 이름 아래에 뜻있는 일에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모였기에 처음부터 마음을 열고 서로를 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기간을 거쳐 현지에서의 진료가 진행되었습니다. 짧은 말조차도 알아들을 수 없어 답답했지만 통역을 맡은 친구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말을 너무나도 유창하게 하는 모습이 고마웠고, 같이 얘기할 틈이 생기면 현지얘기 등 이것저것 얘기해 주어 고마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3일간의 진료기간 동안 제가 느낀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인상은 '순박함'이었습니다. 다음 진료로 안내를 해드릴 때 팔을 꼭 잡고 가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를 반가워하는 마음이 느껴졌고, 언어가 달라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마주하는 눈빛, 작은 행동들을 통해 아직 때묻지 않은 마음이 남아있는 곳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고, 한두번의 치료지만 저희에게 그러했듯 현지 주민들에게도 3일간의 진료가 선물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낯선 사람들의 방문과 작은 선물들이 조금이나마 현지 주민들의 일상에 기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저는 학생대장으로 EMC 베트남팀에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떡하지' 걱정만 산더미같이 했는데 일정을 보내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기회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준비과정부터 마지막 진료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가며 일정을 소화했고, 함께한 시간동안 많이 배우며 긍정적인 자극과 동기를 얻고 돌아왔습니다. 아침 식사전에 모여 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좋았고, 저녁마다 숙소로 돌아와 식사를 하며 하루의 일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았습니다. 교수님, 선생님들,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서로 도우며 일을 해나가는 순간순간이 그냥 좋아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너무나도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2017년 저의 첫 기억을 소중히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 너무나도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글

로는 충분히 표현할 수 없어 아쉽지만 함께한 EMC 베트남팀의 기억에 오래오래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생소식

2017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100% 기록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장 김경호)이 2017년도 제81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합격률 100%를 기록해 이화 의료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이 18일(목)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도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92.8%로 전년 대비 0.7% 낮아진 가운데, 이화여대 의전원은 졸업생 2명을 포함해 총 75명의 응시생 전원이 합격해 명실상부한 합격률 100%의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 이화여대 의전원은 앞서 2015년 합격률 100%, 2016년 합격률 98%(2명 불합격)를 기록한 바 있다. 이화여대 의전원은 2007년도부터 통합과정 확대, 임상조기 교육 및 환자-의사-사회과정 신설, 임상실습교육 내실화를 목표로 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학생들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본교 교수진뿐만 아니라 교내·외 의학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학습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100%의 성과는 이러한 노력에 학생들과 교수진이 적극 동참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화여대 의전원은 2017학년도부터 의과대학으로 복귀하며, 의과대학 체제에서도 다양한 교육지원이 계속될 예정이다.

동경여의대 교환학생 환영식사



2017년 3월 14일(화) 동경여의대 교환학생 환영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승정 임상교무부장, 이진화 임상교무차장, 전루민 임상교무차장, 조수진 기획차장, 김민석 기획차장, 동경여의대 교

환학생 3명(김지우, 메이 와타나베, 요시코 엔도), 소아과 실습 M3학생 9명이 참석했다. 동경여의대 교환학생은 2017년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3주 동안 이대목동병원에서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소화기내과, 소아과 임상실습을 하였다.

※ 2017년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국제교류 대학

일본	Tokyo Women's Medical University
오스트리아	Medical University of Graz
대만	College of Medicine, Taipei Medical University
태국	Faculty of Medicine Siriraj Hospital, Mahidol University
미국	The Warren Alpert Medical School, Brown University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멘토 멘티의 날

Ewha Linkage Fellowship

지난 3월 20일 월요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멘토 멘티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의해 주최된 본 행사는 의료 전문인으로 활동 중인 이화여

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인 선배와 후배인 의전원 학생들이 멘토와 멘티로 연계돼 성장 동력을 찾아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의전원 학생들에게 진정한 의료인으로서의 자세를 배우는 기회를 마련해줬다.

김경호 의학전문대학원장의 격려사로 서문을 연 행사는 멘토와 멘티의 만남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멘토들과 멘티들은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서로의 가치관과 미래 비전을 나누는 화기애애한 만남의 장을 가졌다. 이후 황일태 한림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의 강의가 이어졌는데, 강의는 고령화로 인해 변화될 미래 한국 의료 환경과 그에 대한 대응책,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으로 이끄는 의사의 자세, 해외 우수 병원의 사례와 마케팅 전략 등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이날은 자신의 전공분야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영상의학과, 신경외과, 중환자의학과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19명의 멘토 뿐만 아니라 영화평론가, 의학전문기자 및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있는 3명의 멘토까지 총 22명의 멘토가 참석했다.

이 행사를 통해 멘티에게는 의료인으로서의 자세와 앞으로 지향할 바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고, 멘토들에게는 후배들에게 조언해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학업에 시달린 본과 학생들에게 미래 비전을 구체화시켜준 멘토 멘티의 날 행사의 내년을 기약해 본다.

〈의예과 1학년 방윤지, 최윤영 기자〉

교수소식

정년퇴임사

구혜수(병리학)



정년퇴임을 맞아서 나에게 이화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1969년에 의예과 1학년 학생으로 시작된 인연은 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지속되었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화는 매 순간 느끼지 못하지만 들어 마시고 내쉬는 공기처럼 제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보낸 친구들과 즐겁던 시간과 함께 40세 이후에 만나서 함께 많은 일을 하면서 기쁨이 많았던 시간을 함께 보낸 친구들,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부족함 점이 많은 저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과 축복이 더욱 충만한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화대학과 의과대학 이화의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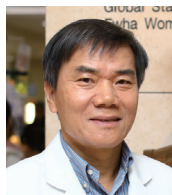
전선희(산부인과학)



1984년 4월 전임강사로 시작하여 이제 33년간의 이화대학 교수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을 맞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축하하여 주시니 감사하기 그지없으나 한편 지나온 날에 대한 회한 역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33년 동안 이화대학과 의료원에서 겪은 경험과 인연들은 좋았던 것이든, 그렇지 않았던 것이든 앞으로 남은 저의 삶에 자양분으로 자리 매김 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저에게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신 모든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안분지족의 마음가짐으로 중용 또는 중도의 삶을 목표로 살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면서 “능력은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인내는 더 많은 것을 이루게 하며, 겸손은 모든 것을 완성시킨다”는 잠언을 인용함으로써 정년 퇴임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 수상 및 업적

내과학교실 성주명 교수, 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출



성주명 교수(혈액종양학)는 translational research와 clinical trial 분야에서 공적을 세운 MD 또는 PhD들을 선발하는 대한민국의 한림원의 정회원이 되었다. 미국 Univ. of Illinois에서 내과 전문의, 텍사스대학 부속 M.D. Anderson Cancer Center(MDACC)에서 혈액학과 종양학 fellowship을 거쳐, MDACC의 department of molecular hematology와 골수이식센터에서 1988년부터 1996년까지 교수로 근무하였고 1997년부터 현재까지 이화의료원에서 백혈병 분야의 치료와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생리학교실 이지희 교수,

2016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수상



본교 조직손상방어센터 소장 이지희 교수는 2016년 12월 31일 기초연구 진흥과 기초과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지희 교수는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지정 MRC 센터장을 역임중이며 현재 이화융합의학연구원 조직손상 및 염증질환 융합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탁월한 연구성과를 통해 의생명과학을 선도하는 조직손상방어연구센터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MD 출신 기초의과학자, physician scientist 박사, MD-PhD 복합학위대학원생 박사 배출 등 최우수 여성의과학자를 양성하여 기초의과학자 인력 양성 교육센터로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학회활동으로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대한생리약리학회지(SCI저널)의 부편집위원장을 맡으면서 학술지의 SCI 등재 등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공헌하였다.

※ 우수업적교수수상자

시상명	교수명
이화행림 교육자상	구혜수, 박준범, 김경호 교수
이화행림 우수연구자상	하은희, 박혜숙, 신상진 교수
PBL Best Tutor상	김정숙, 양현중, 우소연 교수
OSCE Best Tutor상	류동열, 전루민, 한철 교수
이화의대지 공로상	장중현, 편옥범 교수

※ 신입교원 명단

성명	교실(전공)
공경애	예방의학(만성질환역학, 임상역학)
김원중	마취통증의학(만성통증, 두통, 안면통, 삼차신경통, 안면경련, 경견완통, 요하지통, 흉복부통, 경요추 추간판탈출증, 대상포진후신경통)
서동만	흉부외과학(영유아 복잡 심장기형, 심장이식(소아, 성인))
송태진	신경과학(뇌졸중, 뇌혈전용해술, 뇌경색 치료 및 예방)
우경태	성형외과학(유방재건, 유방성형, 종양 절제 후 재건, 미용성형)
이덕희	응급의학(응급의학, 독성학, 응급의학교육)
이희성	외과학(췌장암, 담관암, 간 전이암, 담석증, 단일공 복강경 수술, 로봇 간담췌수술)

동창회 소식



이화의대동창회(회장 오혜숙)은 지난 3월 4일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제 51차 정기총회 및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1대 신입 회장에 이남희 회장(28회, 광진구 이남희 산부인과)을 선출했다. 이남희 신입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약 4200여 명의 의사를 배출시킨 이화의대동창회장에 취임하면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2년의 임기 동안 나눔과 섬김, 봉사의 이화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2018년 완공 예정인 새 병원과 의과대학이 성공리에 완공되어 몸과 마음을 보듬는 공간이 되고 최첨단 의료시설로 동북아 허브 국제의료기관이 되도록 건립기금 모금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라며 “이화를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집행부는 수석부회장 심현(29회) 지역부회장 길선연(30회) 교내부회장 성연아(34회) 총무이사 김미영(31회) 등으로 결정됐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추무진 의협회장,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여자 의사회 김봉욱 회장 및 2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여 한가운데 진행됐다. 오혜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병원이었던 보구여관을 뿌리로 하여 동대문병원과 목동병원을 거쳐 이제는 우리 이화의 힘찬 도약을 위해 마곡에 의과대학과 이화의료원 강서 제2병원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제대로 잘 지어져 국제적인 명문 대학과 의료원으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행사알림

1. 보구여관 13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 2017. 5. 26(금) 10:00 ~ 18:00,
이화여자대학교 ECC 지하4층 이삼봉홀

2. 모교방문의 날 행사

- 이화의대 졸업 30주년
2017. 5. 17(수) 19:00~22:00,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
- 이화의대 졸업 50주년
2017. 5. 26(금) 12:00~15:00, 이화여자대학교 ECC 지하4층 케세이호

3. 학생 행사

-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체육대회
2017. 5. 20(토) 12:00~19:00,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관 홀 2호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변성완(정보관리부장)

편집위원 김윤진(정보관리부 차장), 김범산(정보관리부 차장), 박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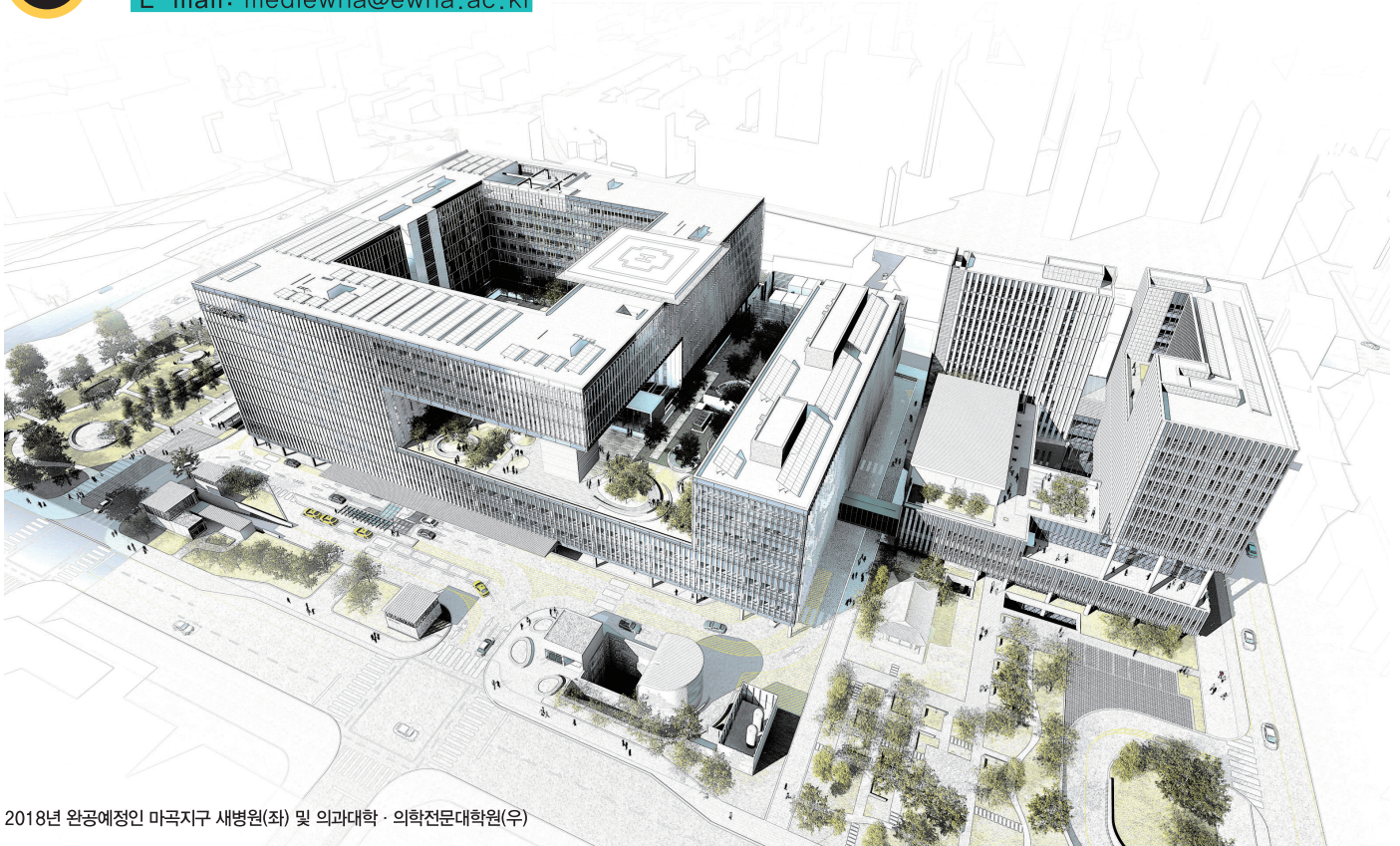
학생기자단 고혜진, 박조은, 방윤지, 최은영

디자인·인쇄 정디자인



※ 소식지에 게재할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mail: mediewha@ewha.ac.kr



2018년 완공예정인 마곡지구 새병원(좌) 및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우)